

그림에도 종류가 있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요즘 한국의 드라마가 한류 바람을 타고 인기다. 이는 한국 드라마의 설정이나 출연하는 연기자들의 탄탄함에도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는 드라마를 보다가 공연히 가슴이 뜨끔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사실 우리 드라마의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의 삶을 그리기보다는 제법 있는(?) 집들의 욕심과 질투로 인해 빚어지는 사건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 재벌 집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집안 장식품이 나올 때면 얼굴이 붉어진다. 대부분의 드라마 속 그림은 고흐나 클림트의 모작 또는 이미테이션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대체 예술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벽장식용 그림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조각하기 짝이 없는 인테리어 소품이라 불리는 장식품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외국의 한국드라마 팬들에게 우리의 이런 문화적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아니 조금 산다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그 시대의 얼굴이자 거울이라고 하니 말이다.

물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지난 달력에서 예쁜 그림을 오려 내 액자를 만들어 벽에 걸곤 했다. 여기에는 소박한, 가난하지만 예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자그마한 소망이 담겨있었다. 그냥 액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액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그림은 이런 소망을 담은 액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용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아는 것 같이 화려한 짝퉁 그림이 왜 그곳에 걸려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걸려있다.

그림은 되도록 많이 걸고 인테리어 소품은 집안에 그득하게 늘어놓으면 좋은 것일까? 아니다. 있을 곳에 있어야 하고 주변과 어울려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의 기풍과 살림을 하는 여성의 안목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공부하고, 감상하러 발품을 파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옷을 입을 때도 소위 코디를 하면서 그림을 걸고 집을 장식하면서는 이런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하긴 뮤지컬과 오페라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에게 팝아트와 일러스트풍의 장식용 그림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를 보고 암수를 구분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지만 말이다.



모나리자의 열기



핸드폰으로 보는 모나리자

이제 우리 사회는 발터 벤야민이 일찍이 간파했던 것처럼 기술복제시대에 원본이 사라지고 복사본이 원작을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 이제는 원작의 아우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 화면으로, 구글의 뮤지엄 프로젝트로 검색을 통해 보는 모나리자와 직접 파리의 루브르에 가서 보는 원작이 주는 감동이 같을까. 사람에 따라서는 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글쎄. 이렇게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하다보니 세상에 어려운 어른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동시에 그 그림을 같이 보거나 이미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그런 도구이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본이 아닌 복제본 아니 복사본을 가지고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우라란 예술작품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불상이나 성모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 자체와 주변에서 풍겨내는 고고함 같은 것이다. 그림이라고 해서 모두 그림은 아니다. 소설에도 일반소설과 대중소설과 판타지 소설, 무협지 등등이 있듯 말이다. 누군가에게 취미를 묻자 독서라고 답하기에 요즘 읽는 책은 무엇이야고 했더니 '만화책'이라고 했다던가. 그림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 어떤 그림이 걸려있는지 어떤 그림을 집에 걸어 둘지부터 꼼꼼히 다시 생각해보자. 그림을 본다는 것은 과정이 중요하지 본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